제 1 교시

국어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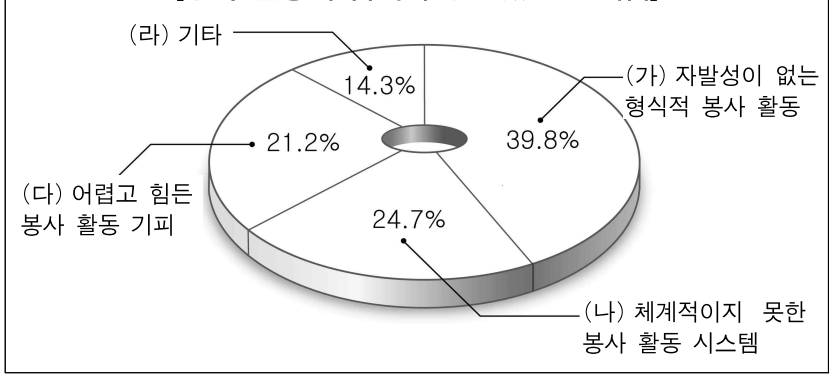
홀수형

[1~3] 다음은 '학생들의 봉사 활동 활성화'라는 주제로 수업시간에 발표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갑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더 테레사 효과'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마더 테레사 효과란, 남을 돕는 활동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일컫는 말인데요, 음… 봉사 활동을 할 때, 인체의 면역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대가나 보수, 명예 등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활동을 계속 실천하는 것이 봉사 활동의 근본 취지인데, 이런 이타적인 활동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물론 신체적인 부분까지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생전에 나눔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효과를 경험해 보셨나요? (많은 학생들의 웃음) 하하하! 예, 여러분의 다양한 반응을 보니 이런 경험을 해 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느낀 문제점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름의 해결책 역시 제시해 보았습니다. 우선, 설문 조사 자료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느꼈던 문제점]



이 자료를 보면 (가)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많은 학생들은 그 원인이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보면 봉사 활동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면서 자발성이 부족한 활동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 항목인데, 그 원인은 학교나 봉사 활동 관련 기관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는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봉사 활동이 일회성에 머무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다) 항목은 (가) 항목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이 시간 채우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편한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은 사실 이타적인 활동이 전혀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가), (나), (다) 항목의 원인을 살펴보니 봉사 활동 본래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 (다) 항목의 경우, 자신의 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부터 스스로 반성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자발성과 이타성이 부족한 것을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 항목의 경우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연계된 기관의 봉사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또 활동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말의 속도를 빨리하여)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봉사 활동 기관과 연계하여 활동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양한 봉사 활동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다면, 이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발표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고 있다.
② 소개하고자 하는 개념을 청중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개념 정의를 통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③ 다양한 매체를 통해 현 실태를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④ 시각 매체를 통해 문제점을 잘 드러내었으나 해결책과 문제점이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⑤ 의문형 어투를 사용하여 청중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재촉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발표 자료를 보완하려는 구상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 '마더 테레사 효과'는 1988년 미국 ○○○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견한 사실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 영상을 보여준 전과 후의 면역 항체 수치를 측정했는데, 실험 대상자 모두 면역 항체 수치가 실험 전에 비해 일제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직접 선행을 베푸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B. '헬퍼스 하이'는 미국의 내과 의사가 쓴 용어로 남을 돕는 행동이 단순히 심리 효과나 뿌듯한 기분을 넘어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그 예로 엔도르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으로 분비되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불면증과 만성 통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① 봉사 활동의 의무화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데에 A를 활용해야겠어.
② B는 남을 돕는 행위가 신체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 활동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어.
③ A는 선행을 보는 것으로도 신체 면역에 긍정적 반응이 있다고 알리는 자료이므로 이를 도입부에 첨가하여 남을 돕는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강조할 수 있겠군.
④ A, B를 통해 성인들의 봉사 활동에 비해 청소년들의 봉사 활동이 일회적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힐 수 있겠군.
⑤ 봉사 활동을 하면 자신의 신체적 기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면역 기능이 실제로도 좋아진다는 점을 밝히려면 A, B를 동시에 활용해야겠어.

3.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쓴 작문 초고이다. 위 발표와 <보기>에 대한 비교·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현재 우리나라의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의식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진정성이 부족한 봉사 활동이 의식적인 측면의 문제점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 치이다 보니 학생들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여, 편한 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소위 봉사 활동 시간을 많이 주는 기관으로 몰려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의식적인 문제를 비단 개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는 교육 기관, 그리고 자녀를 입시의 현장에만 내모는 학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진정한 봉사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홍보 영상을 자주 제작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나 봉사 활동 단체들이 봉사 활동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봉사 활동들이 주변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봉사 활동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특히 사회 복지 계열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관련 직종 군을 희망 직업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관련된 책자를 배부하는 것과 대학생이 되기 전에 미리 사이버 학점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제도적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봉사 활동이라는 용어도 사실 문제이다. 남에게 시혜하는 태도가 아닌 남과 함께 하는 태도가 수반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따뜻한 사랑이 '함께' 꽃피는 곳이 될 것이다.

① 현재 학생들의 봉사 활동이 다소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위 발표의 발표자와 〈보기〉의 글쓴이의 생각은 유사하다.
② 〈보기〉에서는 의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서도 찾고 있다.
③ 위 발표와 달리 〈보기〉에서는 현실에 걸맞은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봉사 활동이라는 용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④ 위 발표와 달리 〈보기〉에서는 사회 복지 계열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일부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게 제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있다.
⑤ 위 발표자가 〈보기〉의 글쓴이와 달리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화법과 작문의 상황적 성격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4~5] 다음은 방송 대담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 장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과장님,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 장 : 네, 저희 자치단체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약국이나 제약 회사가 판매하고 남은 의약품을 저희 정보망에 기탁하면, 의약품이 필요한 사회 복지 시설이나 국내외 의료 봉사 단체에 무상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이버 상의 네트워크입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 이유는 의약품을 기탁하는 곳이나 받는 곳 모두 이점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나요?

과 장 : 네. 약국이나 제약 회사에서는 처방전 변경 등으로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들을 기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죠. 또 유통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들만을 기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기부금 관련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 시설이나 봉사 단체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양제나 아토피 치료제 같은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 초를 기준으로 40여 곳에서 기탁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5억 원 어치의 의약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음,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했다면 아직은 널리 확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이라도 있나요?

과 장 : 아, 네. 좀 있습니다. 재고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면 판매량 감소 등의 이유로 다시 재고가 쌓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전문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제공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 과정도 좀 더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고요.

진행자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 장 : 아, 그건 아주 쉬워요. 기부하고 싶은 사업체나 받고 싶은 시설 및 단체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간편해서 좋군요. 모쪼록 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외 의료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대담을 들은 청취자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반인 :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② 기탁자 : 저희가 부담 없이 의약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③ 봉사 단체 관계자 : 방송을 듣고 지원받고 싶은 단체가 더 늘어날 텐데 의약품이 골고루 지원되어야 할 거예요.
④ 기탁 의약품 사용자 : 기탁하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이 잘 관리되어야 저희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의 이점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도 실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5.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대방의 답변을 해석하며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②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③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여 화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상대방의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⑤ 대담의 속도를 조절하며 화제에서 벗어난 답변을 제지하고 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작품 중 하나를 골라 그 작품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 보자.

[조건]
1. 해당 작품의 시대적 의의를 기술할 것.
2. 작품 속 소재 중 하나의 용어에 관하여 설명할 것.
3.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장면을 설명할 것.

신윤복, 「월하정인」

김홍도, 「타작도」

[과제 수행 기록]

2학기 수행평가 중 지난 번 작문 과제는 직접 현대적 풍속화를 간단하게 그린 후 현대 사회에 대해 설명해 보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이번의 작문 과제는 전통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 보는 것이었다. 두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달 아래의 연인들의 애정이 담긴 그림보다는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김홍도의 작품이 마음에 들었고, 이것은 농민의 삶에 관심이 있었던 내 취향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림이 풍속화인 점을 고려하여 '「타작도」에 드러난 조선 시대 농촌의 생활 모습에 대한 감상'을 주제로 하여 글을 써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들을 포착하여 각각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담은 글을 써 보았다.

[학생의 글 초고]

김홍도의 「타작도」는 조선 시대 농촌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 조선 시대에는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우선, ㉡ 그림 가운데에는 통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려져 있다. ㉢ 농부들 사이에 놓인 그 통나무는 '개상'이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에 곡식 낟알을 떨어내는 데 사용한 일종의 탈곡기라고 한다. 이 개상을 둘러싸고 가을이 되어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이 신나 보인다. ㉣ 그림 왼쪽에서 곡식단을 힘껏 내리치려는 농부의 모습이 보였다. 이 모습은 나에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술병을 ㉤ 앞에 두고서 비스듬히 기대 누워 있는 양반이 그려져 있다. 일하는 농부들을 거들지는 않고 누워 있는 양반이 얄밉게 보이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작가 김홍도는 한 장의 그림 속에 농촌의 어느 가을 하루를 포착하여 담아냄으로써 조선 시대 서로 다른 계층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6.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글의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② 작품 선택 과정에서 개인적 선호는 최대한 배제하여 선정하고 있다.
③ 대상의 몇 부분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감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④ 지난번에 주어졌던 과제를 상기하며 이번 주의 과제 수행 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⑤ 과제 수행 글에서 그림의 시대적 의의를 담아내라는 조건에 부합하게 초고를 작성하고 있다.

7.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글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므로 그대로 유지한다.
② ㉣은 작문 과제의 〔조건〕을 고려하여 ㉡앞에 배치한다.
③ ㉢은 글 전체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삭제하도록 한다.
④ ㉤은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앞에서'로 바꾼다.
⑤ ㉥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로 바꾼다.

8. 〈보기〉는 윗글의 과제를 수행한 학생이, 유사한 소재로 다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상한 글감이다. 논제에 따라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 구상한 글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논 제] 제시문에 드러나는 '나'의 행동 특성이 다수의 현대인들이 지닌 행동 성향이라 할 때, 그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할머니'의 시각이나 입장에서 그것의 해결 방향을 찾아 논술하시오.

[제시문] 산그늘 내린 밭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번을 내리치는 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世上事)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솨아솨아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都市)에서 십 년을 가차이 살아 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솨아솨아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 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

① 성급히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거나 결과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일을 그르치기 쉽다.
②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일처리, 부실한 건축 공사 등을 우리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③ '느림'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빠름'의 태도를 중시하는 어른들의 가르침을 외면한다.
④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일을 함으로써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느림'의 지혜가 필요하다.
⑤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비단을 얻으려면 누에를 치고, 쌀을 얻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분석한 문제점 / 현실의 사례 / 원인 분석 → 글감 → 해결 방향 / 효과적인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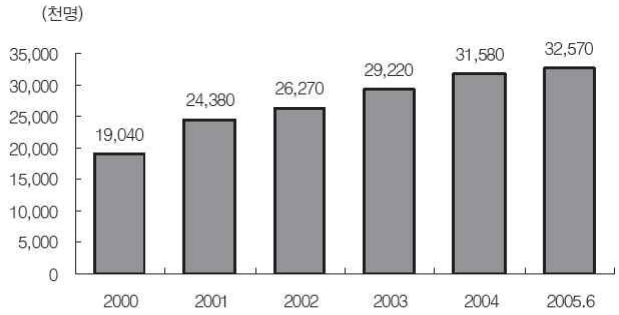
9. 〈보기〉는 유비쿼터스 사회 발전 현황에 대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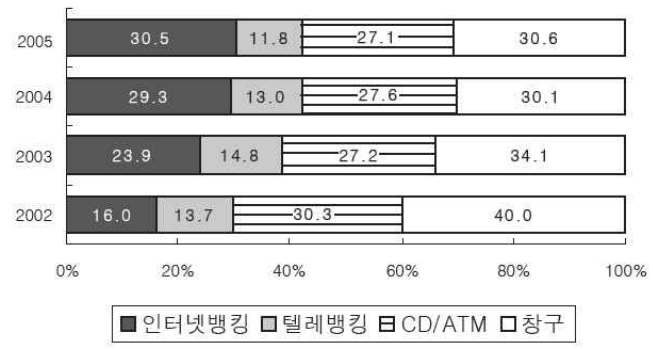
한국은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2000년대 들어 인구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또한 1999년에 한국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추월하여 2005년 현재 전 인구의 3/4이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추월하였다.

이동전화로 시작된 모바일 통신 서비스 혁명은 단말기 한 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화가 가능한 시대를 열어놓고 있다.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도 점차 일상화되고 있으며, 전체 인터넷 이용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2월 22.7%에서 2005년 6월 27.9%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특히 금융거래의 온라인화 및 전자상거래의 약진이 돋보이는데, 1977년에 도입된 인터넷뱅킹의 비중이 2005년 들어 창구서비스 비중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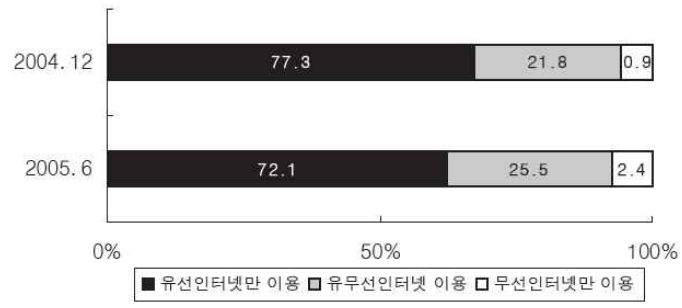
① 국내 인터넷 이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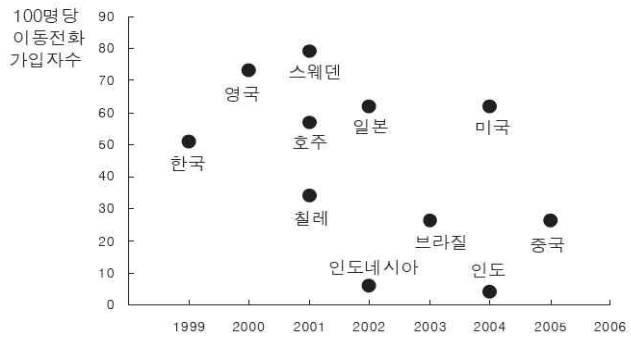
② 국내 금융 서비스 채널별 업무처리 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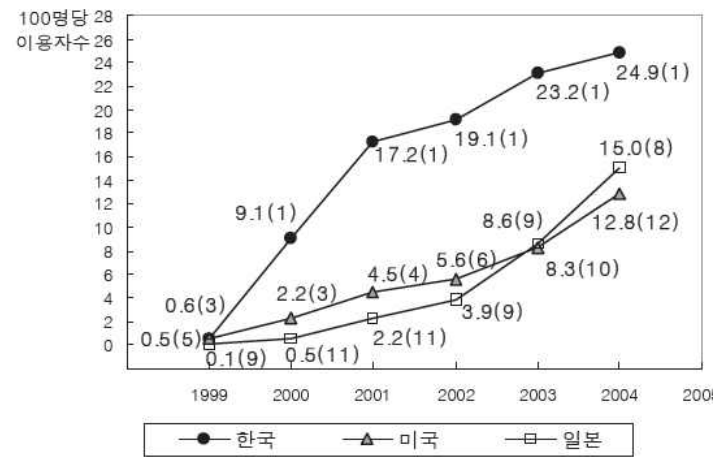
③ 국내 무선인터넷 이용률의 증가



④ 이동전화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 추월 시점



⑤ 한·미·일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수 비교



※ ( )안의 숫자는 세계순위임.

10. 다음 <표>는 1916~1932년 우리나라 농가 호수의 지주, 자작농, 자·소작 겸작농, 소작농 구성비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A, B, C, D에 알맞은 농가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표> 농가 유형별 농가호수 구성비

(단위 : %)

연도 \ 농가 유형	A	B	C	D
1916	20.1	2.5	40.6	36.8
1918	19.6	3.4	39.3	37.7
1920	19.5	3.3	37.4	39.8
1922	19.7	3.7	35.8	40.8
1924	19.5	3.8	34.5	42.2
1926	19.1	3.8	32.5	44.6
1928	18.3	3.7	32.0	46.0
1930	17.6	3.6	31.0	47.8
1932	16.3	3.5	25.4	54.8

※ 조사 기간 동안 전체 농가 호수는 변화가 없었음.

<보 기>

일제는 1918년 완료된 토지조사 과정에서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 명의의 신고만 인정하고 공유지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농가는 복잡한 신고 절차와 유언비어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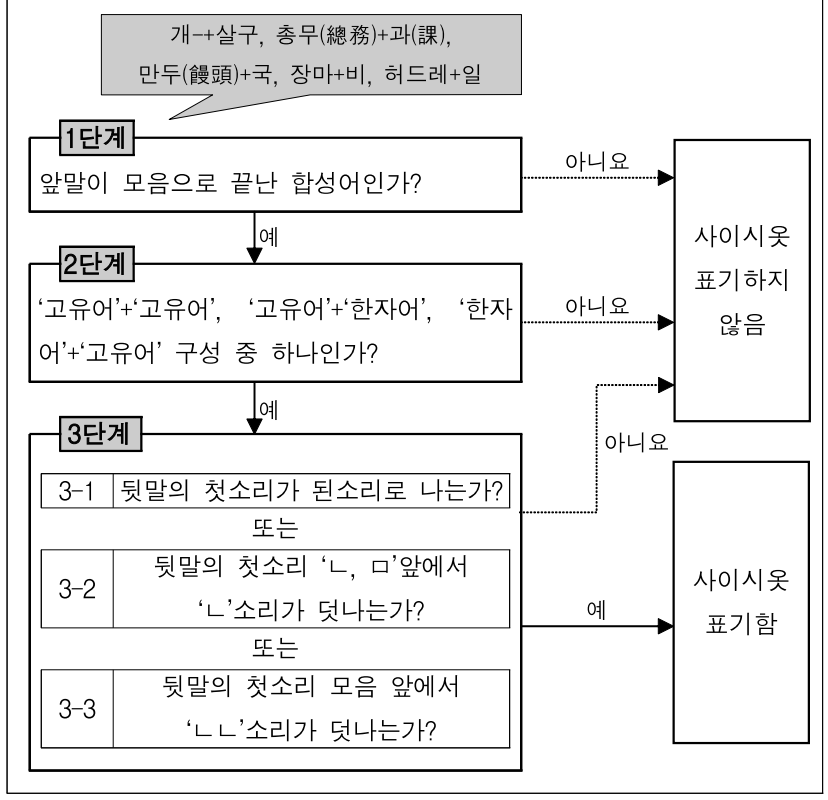
토지 분배의 불균형은 계속되어 대부분의 토지를 소수 집단인 지주가 차지하였으며, 과다한 소작료와 관습적인 규제로 인하여 농민 계층은 해가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농민 소유의 토지는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농민들은 자작농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여 자·소작을 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심지어 지주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인하여 소작권을 임의로 교체당하기도 하였다. 농민들은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영구 경작권마저 박탈당하여 기한부 계약의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1918년 이후 매년 증가하였다.

	A	B	C	D
①	소작농	지주	자작농	자·소작 겸작농
②	자작농	지주	소작농	자·소작 겸작농
③	자·소작 겸작농	지주	자작농	소작농
④	자작농	지주	자·소작 겸작농	소작농
⑤	지주	자·소작 겸작농	자작농	소작농

11.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과 합성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개-+살구'의 구성은 '해+님'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② '총무+과'의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③ '만두+국'의 구성은 1, 2, 3-1단계를 모두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④ '장마+비'의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⑤ '허드레+일'의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12. 다음 학습 활동의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①	그 일은 정말 힘들게 보여진다. → 그 일은 정말 힘들게 보인다.
②	작년에 철수는 승아에게 차여졌다. → 작년에 철수는 승아에게 채었다.
③	서연이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 서연이가 나를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④	땅에 묻혀진 것은 선조가 남긴 보물이었다. → 땅에 묻힌 것은 선조가 남긴 보물이었다.
⑤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었다.

13.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1>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을, '+/−'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ㅁ/과 /ㅂ/은 두 입술로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양순성〕)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ㅁ/은 〔+양순성, +비음성〕, /ㅂ/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A → B /__C)의 음운동화 현상에서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보기 2>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규칙】 A → B / __C
【실례】 ㄱ → ㅇ / __ㅁ 국물 〔궁물〕
ㄷ → ㄴ / __ㅁ 맏며느리 〔만며느리〕
ㅂ → ㅁ / __ㄴ 읍내 〔음내〕

① ㉠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②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할 수 없겠군.
③ ㉢에 해당하는 'ㄴ, ㅁ'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④ '읍내'에서 ㉣에 해당하는 'ㅂ'과 'ㅁ'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⑤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할 수 없겠어.

14. 〈보기〉를 참고할 때 '관형어'와 그에 들어가는 품사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성분으로서 크게 관형사, 관형사형, 관형격 조사가 있다. 관형사는 활용이 되지 않으며 품사 자체가 관형사이다. 반면 관형사형은 활용이 되기에 품사 자체가 형용사 혹은 동사이다. 나아가 관형격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여 문장 성분을 관형어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예문

(가) 작은 새 두 마리가 즐겁게 지저귀고 있습니다.
(나)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이다.

① (가)에서 '작은'은 '새'라는 체언을 꾸며주면서 활용하므로 관형어가 아니겠군.
② (가)에서 '두'는 '마리'라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고 활용은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온' 등과 달리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야.
③ (나)에서 '나의' 중 '의'는 '나'라는 대명사와 결합하면서 동시에 '고향'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로 볼 수 있겠지만 '나의'는 관형어가 아니겠군.
④ (나)에서 '살던'은 체언인 '꽃'을 수식하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관형어이면서 품사로는 동사이겠군.
⑤ (나)에서 '피는'은 체언인 '산골'을 수식하기 때문에 관형어이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품사는 동사이겠어.

15. 다음 ㉠~㉤에 대한 설명 중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자료	**[중세 국어]** 海東(해동) ㉠六龍(육룡)이 ㉡ᄂᆞᄅᆞ샤(아) 일마다 ㉢天福(천복)이시니 **[현대 국어]** 해동의 육룡이 나시어 일마다 하늘의 복이시다. **[중세 국어]** ㉣불휘 기픈 남ᄀᆞᆫ ㉤ᄇᆞᄅᆞ매 아니 뮐씨 곶 됴코 여름 하ᄂᆞ니 **[현대 국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중세 국어]** 이런 ㉤젼차로 제 뜻을 시러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현대 국어]** 이런 까닭으로 자기의 뜻을 실어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학습 활동	㉠~㉤을 비교한 후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 나아가 현대 국어와의 차이도 생각해 보자. ([가])

① ㉠의 '이'는 주격 조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 '이'와는 다르다.
② ㉡의 '-샤-'와 ㉢의 '-시-'의 형태적인 차이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③ ㉡의 '-샤-'와 ㉢의 '-시-'는 현대 국어의 '-시'와 마찬가지로 주체를 높이는 어미로 기능하였다.
④ ㉣은 ㉠과는 달리 주격 조사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지만 주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ㅐ'는 ㉤의 '로'와 마찬가지로 원인을 드러내는 부사격 조사로 기능하고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환율은 자국과 외국간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헤아리는 것은 활발히 무역이 이루어지는 세계화 시대에 들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환율의 변동이 어떤 원리로 두 나라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환율은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수요 곡선과 외화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형성된다. 가령 공급 곡선의 변화가 없을 때 외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환율이 상승한다면, 환율 상승 전과 비교할 때 동일한 금액의 외국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더 많은 자국 화폐가 필요하게 된다. 환율상승은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의 환율에 따라 변하는 무역 상황을 살펴보자. 만약, 달러를 교환하는 외환 시장에서 환율(원/달러)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한다면 원화로 표시된 가격이 6,000원인 한국의 제품을 수입하던 미국의 입장에선 6달러를 지불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제품을 4달러만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선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 4달러인 미국의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기존에 4,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제품을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6,000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미국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는 곧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환율의 상승은 자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한다. 일본이 엔화의 공급을 늘려 엔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키고, 중국이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 시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 무역 시장은 두 국가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다수의 국가가 무역 이익을 위해 경쟁한다. 위의 상황이 3국 이상 간의 무역에 적용되면 한층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이 늘어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쟁국들의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 화폐 가치보다 더 많이 하락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상품의 수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 간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주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와 외국 화폐 가치의 비교이므로 환율의 상승·하락으로 인한 효과를 판단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국 이상 간의 국제 거래에서 환율의 등락을 기준으로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경우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국 화폐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복합적으로 추론하여 판단해야 한다.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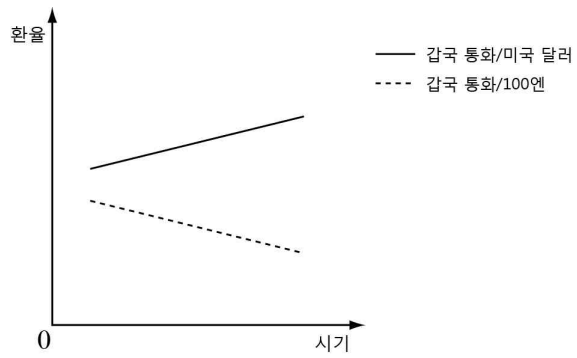
① 외환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일정할 때 외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자국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② 경상수지가 악화된 국가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자국 화폐의 공급을 늘리기도 한다.
③ 세계 시장에서 자국 화폐 가치의 하락은 자국 상품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④ 무역 이익을 위해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
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외제차에 대한 한국인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17.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폐의 기원을 서술하여 대상의 유래를 알리고 있다.
②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④ 논지를 드러내고 대상에 대한 통념이 맞지 않음을 설명하여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논의의 불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8. ⓐ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래프를 분석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위 그래프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① 달러와 비교할 때 갑국의 화폐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② 미국 시장에서 갑국의 가격 경쟁력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③ 엔화와 비교할 때 갑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④ 일본 시장에서 갑국의 가격 경쟁력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애호가들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같은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과 영혼이 고양되는 느낌을 동경한다. 그러나 현대 예술들 중에는 인간의 신체와 그 분비물을 충격적으로 등장시켜 논쟁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그 한 예로 사진작가 안드레 세라노의 1987년 작품 '오줌 예수'를 들 수 있다.작가는 자신의 소변과 소의 피를 섞어 색을 맞춘 용액 속에, 나무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예수상을 넣어 이 모습을 촬영한 후, 그것을 사진으로는 큰 크기인 150cm×90cm 크기로 인화하였다. 그 액체를 소변이라고 바로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오줌 예수'라는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제목과 결합하면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을 격분시켰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신성 모독이라는 비난이 지나치지 않을 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옹호하는 **현대의 예술 비평가들**이 '오줌 예수'의 가치를 변호하는 하나의 방법은 미적 형식주의이다. **미적 형식주의자들**에 의하면 작품 속에 어떤 대상이 담겨 있는가, 혹은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신 작품의 형식, 즉 미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특별한 종류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선과 색들의 구성과 결합에 주목한다. 세라노의 작품도 역겨운 재료나, 종교적인 주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사진 이미지의 형식만을 감상한다면, 크기의 장엄함과 진한 금색과 붉은빛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 뿌옇게 드러나는 형상은 아름다움을 넘어 신비롭고 경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루시 리파드**의 평론은 이와는 다른 입장에서 **세라노**를 변호한다. 물론 리파드 역시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먼저 부각한다. 하지만 리파드는 작품의 형식뿐만 아니라 형식주의자들이 애써 외면하려고 한 내용에도 주목한다. 리파드는 세라노가 오줌과 같은 신체의 분비물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것은 아마도 그가 가진 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이리라 추정한다. 중남미에서는 성당 안에 성자와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기념하는 뼈, 해골이나 핏자국, 분비물의 흔적까지도 보관하고 있다. 세라노는 그것들을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오늘날 문명화된 세계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훨씬 생생한 방식으로 영적인 것과 만났던 것을 회고한 적이 있다. 세라노는 자신의 작품들은 종교 자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제도화된 현대 문명의 종교가 어떤 식으로 성상들을 상업화시키고 그 가치를 값싼 것으로 훼손시켜 왔는지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파드는 또한 서구 미술의 전통이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세라노의 작품들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1800년대 초 활동했던 스페인의 대가 프란시스코 고야를 언급한다. 고야의 '전쟁의 공포' 연작은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나폴레옹 군대의 만행을 고발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스페인 농민들도 똑같이 잔인한 짓을 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선과 악에 대한 대립적 표현이 아니라 극단적 순간에 드러나는 폭력적 인간 본성에 대한 고발이다. 리파드는 세라노의 스페인계 혈통에 존재하는 '폭력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는 예술'의 선조 격으로 고야를 들고 있는 것이다.

리파드의 평론은 세라노의 작품이 그 재료와 불쾌감으로 인해 손쉽게 비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미적 쾌감의 제공이라는 예술 고유의 기능을 넘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현대 예술의 경우, 그 해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단일한 형식주의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차원의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19.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바라보는 이론들을 소개한 후, 사례들을 통해 대상을 위한 이론의 성립이 필연적임을 드러내고 있다.
② 특정한 이론의 분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소개한 후 그것의 의의를 기술하고 있다.
④ 대립되는 두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절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⑤ 미적 대상을 제시하고 그 대상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적 형식주의자들'은 형식보다 작품 속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② '예술 애호가들'은 작품이 말하는 주제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이며 아름다움을 넘어서 다양한 형식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③ '루시 리파드'에 따르면 '세라노'의 종교에 대한 반감이 그의 미적 작품의 구현에 이바지했다고 본다.
④ '루시 리파드'에 따르면 '세라노'의 작품은 작가의 현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⑤ '현대의 예술 비평가들'과 '리파드'는 미적 쾌감을 드러내는 예술보다는 현대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파고듦으로써 선악의 대립을 강조하는 내용을 선호할 것이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망령, 역사적 괴물'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콜라주 기법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 신화적 상징물들을 붙여 놓았다. 여러 상징물들의 조각들을 모은 결과 괴물의 형상이 되는데, 이 괴물은 개인적 소망을 비는 데 사용되는 상업화된 종교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① '미적 형식주의자들'은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콜라주 등의 구성에 주목하겠군.
② '예술 애호가들'은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정신적 내용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겠어.
③ '루시 리파드'는 〈보기〉의 작품이 갖는 현대적 의의를 강조할 확률이 높아.
④ '루시 리파드'는 〈보기〉의 작품의 형식적 특성 역시 간과하지는 않을 것 같아.
⑤ '루시 리파드'는 '전쟁의 공포'와 〈보기〉의 작품이, 극단적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의 폭력성을 잘 포착하였다고 생각할 것 같아.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경 전달 물질이란 뇌를 비롯한 체내의 신경 세포에서 방출되어 인접한 신경 세포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중에서 뇌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를 합성하고 방출하는 신경 세포를 세로토닌 신경 세포라고 한다.

세로토닌 신경 세포가 자극을 받아 흥분하면 세로토닌을 가득 담은 소포체는 신경 세포 안에서 전기 신호를 통해 신경 말단으로 이동한다. 흥분이 신경 말단에 도달해 신경 세포막과 소포체가 결합하면, 소포체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세로토닌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이때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세로토닌을 인접한 다른 신경 세포의 수용체가 받아들이면서 흥분이 전달된다. 세로토닌은 이처럼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정보만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매개로 작용하며,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세로토닌 중에서도 세로토닌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세로토닌 신경 세포 말단에 있는 세로토닌 수송체로 다시 흡수된다. 단, 이러한 세로토닌 재흡수 비율이 높으면 신경 세포 활성을 떨어뜨리므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세로토닌 신경 세포는 그 자체에 스스로를 조절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를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수용체는 세로토닌의 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자기 억제 회로에 해당된다. 그런데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는 자극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달라져서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신경 세포가 받는 자극이 적거나 없으면 유전자가 발현되어 자기 수용체 수가 늘어나게 되고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자기 수용체 수는 적은 상태가 된다. 만일 자기 수용체 수가 늘어나면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활성 수준이 낮아져 지나친 자기 억제로 시냅스 틈에서 작용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면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한 기분이 되는 등 감정이나 충동 성향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활성 수준이 자기 수용체 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알면 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 세로토닌 신경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토닌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면 모든 일을 평상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걱정거리가 별안간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심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22. 윗글의 핵심 논지를 드러낼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체내에서 뇌가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② 세로토닌 신경 세포 내부는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는가?
③ 세로토닌 신경 세포 연구가 최근 직면한 한계는 무엇인가?
④ 자기 수용적 태도가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세포를 활성화하는가?
⑤ 근심과 불안을 갖지 않고 평정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 수는 개인의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다.
② 세로토닌 신경 세포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방출하는 세포이다.
③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세로토닌은 모두 세로토닌 수송체로 재흡수된다.
④ 세로토닌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되려면 세로토닌 신경 세포가 자극을 받아 흥분해야 한다.
⑤ 신경 세포 말단에 있는 세로토닌 수송체로 다시 흡수되는 비율이 높으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24.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세로토닌이 재흡수된다면 근심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겠어.
② 세로토닌 재흡수 비율을 억제한다면 이전보다 평정심을 되찾을 수도 있겠군.
③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가 줄어들면 신경 세포가 받는 자극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겠군.
④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가 많아지면 이전에 비해 감정이나 충동 성향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겠군.
⑤ 세로토닌 수용체와 결합하는 세로토닌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한 기분이 되겠군.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일 강은 이집트인들의 젖줄이었지만, 변덕스런 강이기도 하였다. 때때로 지나치게 범람하여 이집트인들의 재산을 휩쓸어버리는가 하면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낮아져 굶주림에 시달리게도 하였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강을 보면서 통일 이전 각 지역의 통치자들은 이를 ㉠인공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으나, 그들이 관리하는 지역 단위의 관개 체계는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통치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확산되었고, 이것이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데 큰 자극을 주었다. 통일 직후부터 파라오들이 강가에 제방을 쌓아, 홍수가 났을 때 마을이나 경작지로 범람한 강물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막고, 경작지 안에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뭄 때 주변의 경작지에 공급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점이 그 방증(傍證)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개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나일 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만 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결정은 결국 강압적인 통치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집트의 통치 형태가 권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관개 사업이 힘들었지만, 통치자의 명령에 따른 결과 백성들에게는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었으므로, 다음에 진행되는 더 힘든 사업에도 백성들은 순순히 응하였다.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 중앙 집권적인 전제정치(專制政治)가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농업 생산량의 확대로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왕권의 집행 기관인 관료 제도도 발달하게 되었다. 농업 이외의 산업이 나타나고 이집트의 국토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귀족이 주축이 된 관료들은 파라오의 통치를 보좌하며, 그 대가로 넓은 토지를 하사받아 지배 계층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파라오는 그의 권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하였다. 범람의 수위를 예측하는 능력은 그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 나일 강의 수위 측정은 평평한 바위에 일련의 수평 눈금을 표시해 둔 수위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수위 측정 정보를 통해 물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였다. 수위계를 사용한 이후로 파라오는 자연의 힘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는 신성한 능력을 지닌 지배자로 인식되었고, 마침내 이집트 세계를 창조한 신의 화신으로까지 간주되었다.

2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료 제도의 발달은 농업 생산량의 확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② 파라오의 과학적 수위 측정법은 평민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치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③ 통일 직전에 존재한 파라오는 지역의 통치자들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④ 치수는 나일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해야만 했다.
⑤ 파라오의 종교적 신격화 혹은 전제정치는 농업과 같은 경제적 문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26.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고전 고대적 생산 양식은 세계사의 일반적 발전론의 양식으로서, 대규모의 관개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공평한 사유화가 진행되었던 그리스, 로마 등지의 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식의 대표적 특징은 현세적 종교관, 민주주의적 정치체계 대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황하강, 나일 강 등의 4대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은 관개에 대한 요구와 규모의 재해에 대한 응전의 한 종류였으며, 사실 일반적 발전론이 아닌, 변칙적 발전론에 가깝다. 이러한 양식의 대표적 특징은 전제 군주화, 내세적 종교관 등이 있다.

① 도전과 응전의 과정 속에서의 발전은 파라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였군.
② 이 글은 실질적인 것이 정치나 종교에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과정을 명시하지 못하였군.
③ 이집트의 전제정치 발현은 도전과 응전에 따른 변칙적 발전론이며, 일반적인 정치 발전사와는 궤를 달리하는 이론이군.
④ 이집트의 생산 양식은 민주주의적 정치 체계를 방해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발전은 배척해야 마땅하겠군.
⑤ 실질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의 다양성이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군.

27. 문맥을 고려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필요에 따라
② 명분의 요구에 따라
③ 시대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④ 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⑤ 자극과 반응의 비례적 관계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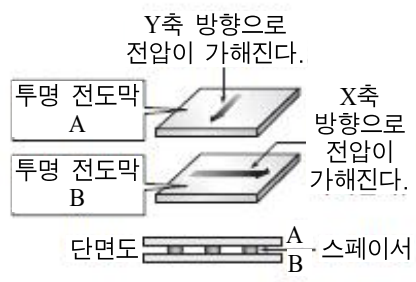
28. ㉠과 품사가 동일한 것을 찾으면?

① 그 장식에서 인공적 조형미가 느껴졌다.
② 합리적 태도를 견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③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다.
④ 가급적 적게 먹도록 하여라.
⑤ 이 작품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터치스크린은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에 나타난 문자나 버튼 등의 위치에 사람의 손 또는 펜과 같은 물체가 닿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특정한 기능을 처리하는 화면이다. 이것은 기존 입력 장치에 비해 정확성이나 문자 입력 등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가락을 접촉하는 것만으로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을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터치스크린은 기본적으로 터치 패널,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 터치 패널은 화면의 앞면에 덮여있는 투명한 입력 장치이다. 투명 전도막이 증착된 필름 또는 강화 유리로 구성된 적층 구조로 되어 있고, 접촉 입력의 유무를 판단하고 입력 좌표를 검출하여 컨트롤러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컨트롤러는 터치 패널에서 전송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화면 상의 좌표로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소프트웨어는 컨트롤러의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 터치 패널이 각 운영 시스템에 맞게 구현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터치 패널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손가락이 광선을 차단하는 위치를 검출하는 '광학 방식', 표면에 압력을 가해 전기적 신호가 발생되는 위치를 인지하는 '저항막 방식', 손가락 자체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정전용량 방식' 터치 패널 등이다. 이 가운데 저항막 방식과 정전용량 방식이 대표적인데, 특히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휴대용 게임기와 내비게이션, 항공기의 객석용 모니터 등에 이용되고 있다.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그림과 같이 2매의 투명 전도막이 0.1mm 정도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있다. 위 판은 압력을 받아 휘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로 필름이 사용되고, 아래 판은 필름, 플라스틱, 강화 유리 등이 사용된다. 투명 전도막 사이에는 '스페이서'라 부르는 절연체 알갱이를 배치하여 두 투명 전도막이 잘못 접촉되는 것을 방지한다. 투명 전도막에는 각각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진다.



그렇다면 저항막 방식 터치 패널은 입력의 위치를 어떻게 검출할까? 표면을 손가락이나 펜으로 누르면, 압력에 의해 투명 전도막 A가 휘면서 2매의 투명 전도막이 접촉하는데, 접촉한 부분을 통해 전기가 흐르고 그 위치에 따라 투명 전도막에 가

해지는 전압의 값이 변한다. 이때 먼저 투명 전도막 A의 접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B 사이의 전압을 측정해서 입력 위치의 X좌표를 안다. 다음 순간, 이번에는 투명 전도막 B의 접촉된 부분과 투명 전도막 A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면 입력 위치의 Y좌표를 알 수 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계속 서로 바꾸어 가며 X좌표와 Y좌표를 검출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정전용량 방식은 겉표면 렌즈와 투명 전극 필름, 액정을 붙여 그 사이에 공간을 없앤 것으로, 누르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지해 터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투명 전극 상에 손가락의 터치 등으로 전도체가 닿을 경우 절연층에 일정한 정전용량층이 형성되고, 이 부분을 통해 신호를 발생해 위치를 검출하는 것이다. 정전용량 방식은 부드러운 터치로도 빠르게 구동하고 두 개 이상의 지점에서 위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히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멀티 터치'의 구현이 쉽다. 이러한 '멀티 터치'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휴대 전화 등에 많이 채택되고 있어 정전용량 방식의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항막 방식이 오래 사용할 경우 감압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데 비해 정전용량 방식은 내구성이 좋아 수명이 길다. 그러나 정전용량 방식은 제조 공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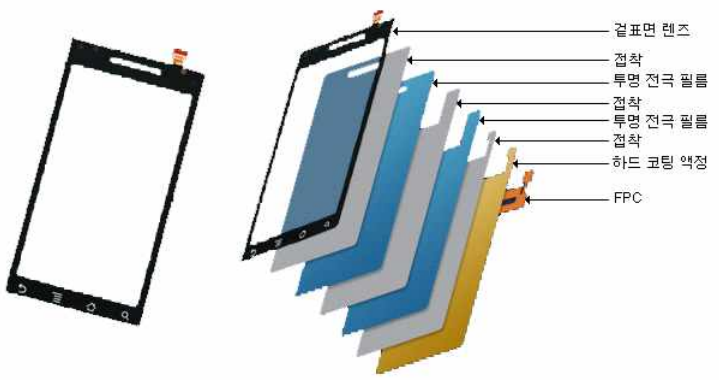
29.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설명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② 대상을 작용 원리에 따라 구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대상이 실생활에 응용되는 예를 기술하고 있다.
④ 핵심적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⑤ 특정한 이론을 통해 대상을 분석하여 논지를 심화하고 있다.

30. 윗글과 <보기>의 (가), (나)를 함께 읽고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일체형 TSP(터치 패널)는 디스플레이 · TSP · 윈도 세 가지로 구성된 부품을 두 가지로 줄인 제품이다. A회사는 디스플레이에 TSP를 부착했고, B회사는 강화유리 윈도에 TSP를 일체화했다. 일체형 제품은 기존 TSP가 가진 낮은 투과율 문제를 거의 해결했으며, 얇은 두께 덕분에 소비전력 감소, 배터리 이용 시간 확대 등의 효과를 낸다. 디스플레이 휘도*를 낮춰도 기존 제품과 같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휘도 : 일정한 범위를 가진 광원(光源)의 광도(光度)를 그 광원의 면적으로 나눈 양을 말한다.

① (가)가 터치 패널과 다른 부품 간의 결합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나)는 터치 패널 내부의 기술 방식과 관련 있는 것이겠군.
② (가)는 가격이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겠군.
③ (가)는 정전기를 탐지해 터치를 인식하는 방식으로서 멀티 터치 구현이 가능하겠군.
④ (나)의 B회사 신제품은 패널을 강화유리에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투과율이 낮아지겠군.
⑤ (가) 제품은 정전용량 방식보다 내구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겠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u>가문 어느 집</u>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u>흐르고 흘러서</u>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u>바다</u>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u>불타는 것</u>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u>만 리</u>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u>하늘</u>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나)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江)**을 보것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것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점층법과 연쇄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의 반복 교차를 통해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⑤ 토속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32.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화자의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 : 우리가 만나는 장소로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후회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③ ㉢ : 이상적인 미래를 이끌 열정을 의미하며,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상이다.
④ ㉣ :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며 '그대'를 끝내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태도가 담겨있다.
⑤ ㉤ : 충만한 생명력이 내포된 합일적 세계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두 개의 정황이 진술의 축을 이루고 있다. 친구가 해준 사랑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하나의 축이고, '산골 물'에서 강을 거쳐 바다에 이르는 물의 흐름이 다른 하나의 축이다. 바다에 이른 것들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애상적 정서, 즉 한(恨)의 정서를 환기한다. 이 축들은 서로 긴밀하게 대응하고 이 둘 모두를 통해 유한성을 환기함으로써 무상감을 형성하며 동시에 삼라만상에 대한 보편적 유대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① '첫사랑'은 '산골의 물소리'에 대응하고 '사랑 끝'은 바다에 대응할 수 있다.
② 강물의 끝인 '바다'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무상감을 인식하고 있다.
③ 화자가 사랑 이야기의 끝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그가 보고 있는 강물 역시 마지막 종착지인 바다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울음'은 유한성과 관련된 한(恨)의 정서라고 볼 수 있다.
④ '불빛'은 '산골 물소리'와 '강'을 통해 드러나는 물의 이미지와 상반적인 정서를 환기함으로써 화자와 친구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⑤ 바다가 결국 '강'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친구의 사랑은 친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소멸의 보편적 유대감을 상징할 수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심봉사는 비록 봉사이기는 하나 착한 아내 곽씨 부인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심청이 태어나자마자 산후 여파로 곽씨 부인이 죽게 되고, 가정은 위기에 처한다. 15년 후 심청은 아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나아가 뱃사람들의 위안을 위해 심청은 인당수에 빠지게 되나 용왕에게 구함을 받고 자신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청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전후 지낸 일이 다 정한 운명인 줄 알고, 더욱 슬퍼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전생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데 ㉠<u>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u>, 지나간 고생과 지금 병든 아비가 굶주리고 슬퍼하여 죽게 될 일을 생각하니 간장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이제는 ㉡<u>너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후에 무궁한 복을 누릴 것이니</u>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내와서 먹이라 하니, 얼마 후에 시녀가 붉은 소반에 차를 내오는데 백옥 잔에 안개 같은 차와 대추 같은 과일이었다. 청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맑아져서 전생의 일이 분명히 기억났다. 부왕(父王)의 용안을 새롭게 알아보며, 좌우 시녀가 전생에 자기 앞에서 심부름하던 무리인 줄 아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자기가 본디 천일주를 맡아보다가 노군을 불쌍히 여겨 술을 훔쳐 먹이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니, 슬픈 마음이 새로워 부인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인간 세상에서 고초를 겪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도로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면 전날의 고초는 일장춘몽이 될 것이니 어찌 천명을 어기겠느냐?"

하고, 시녀를 명하여,

"청을 후원 별당으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라."

하였다.

청이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벌여놓은 것들이 모두 전날에 보던 것이었다.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기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 형편을 참혹히 여겨 붙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더운물을 입에 떠 넣어 구호하니,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 손으로 벽을 치며 통곡했다.

"불쌍하다 내 딸아, 세 살에 어미를 잃고 가련한 어린 아기 어미를 부르짖어 울 적에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목숨이 모질어 죽지 못하고 사는 중에 앞 못 보는 병신까지 되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u>집안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서 하루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u>, 추위와 더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빌어다가 잠시도 배고프지 않게 해 주더니, 이제 아비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네 정성은 지극하나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아아, 하늘이여, 집안 살림이 어렵거든 눈이나 성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든 집안 살림이 넉넉하거나 할 일이지, 제 어찌 애를 그토록 태우며 죽을 곳에 나아갔단 말이냐? 슬프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참혹한데 나는 오랜 병에 성한 자식을 눈앞에서 비명원사(非命寃死)케 하니, 설령 천지귀신이 그릇되게 여기지 아니하여 눈이 뜨인들 어찌 홀로 살아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

하며, 이렇듯 밤낮으로 청을 부르며 통곡하니 이웃 사람이 그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애통해 하다가 스스로 위로하여 더듬어 보니, 청이 빌어다 모아 둔 양식과 마른 고기 반찬과 익힌 음식이 그릇마다 담겼거늘, ㉣<u>만지는 족족 가슴이 막히고 간장이 녹는 듯하여</u> 아무리 슬픔을 억제하려 하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시금 딸을 부르짖어,

"불쌍하다, 너는 병신 아비를 이같이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너를 죽을 곳에 보내고도 태연하니 이게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하며, 밤낮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눈바람이 몰아쳐 뼈에 사무치고 적막한 빈집에 인적이 끊어지니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청이뿐이었고, ㉤얼굴은 핼쑥하여 뼈만 남아 있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③ 초월적 인물의 발화를 통해 주인공에게 정해졌던 운명이 변하고 있다.
④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 교차를 통하여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⑤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35. 윗글과 <보기>를 종합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설화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가 태어나기 전 어비대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국가적 문제가 없는 안정적 상태이다. 그러나 점을 치는 이가 점지한 결혼 날짜를 어기고 서둘러 혼인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아 일곱 번째 딸인 바리데기를 내쫓은 후, 대왕부부는 천벌을 받아 죽을병에 걸리게 된다. 즉,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슴지 않고 지옥에 직접 다녀오는데, 약수를 얻기 위해 지옥에서 수 년 간의 고통을 참고 견딘다. 그리고 약을 구해 초월계에서 현실계로 돌아와 대왕 부부를 소생시킨다. 즉, 이 설화는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을 위한 통과제의의 순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① 바리공주와 심청이 태어나기 전의 가정은 모두 태어난 이후에 비해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군.
② 심청의 탄생과 바리공주의 버려짐으로 인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볼 수 있겠군.
③ 바리공주와 심청은 모두 자신의 가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효(孝)의 모습을 보이고 있군.
④ 바리공주는 현실계가 아닌 초월계에서 모진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심청의 고난과는 다소 차이가 있군.
⑤ 바리공주와 심청이 두려움 없이 각각 자신이 태어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겪는 고난 이후의 기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겠군.

36. 다음 중 ㉠~㉤과 연관이 있는 한자 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수원수구(誰怨誰咎)
② ㉡ : 고진감래(苦盡甘來)
③ ㉢ : 삼순구식(三旬九食)
④ ㉣ : 애이불비(哀而不悲)
⑤ ㉤ : 피골상접(皮骨相接)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ᄃᆞ래랑 먹고 靑山(청산)에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링공 뎌링공 ᄒᆞ야 나즈란 디내와손뎌,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ᄯᅩ 엇디 호리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어듸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믜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ᄅᆞ래 살어리랏다.
ᄂᆞᄆᆞ자기 구조개랑 먹고 ᄇᆞᄅᆞ래 살어리랏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졍지 가다가 드로라.
사ᄉᆞ미 짐ㅅ대예 올아셔 奚琴(히금)을 혀거 드로라.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다니 ᄇᆡ 브른 도긔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로기 ᄆᆡ와 잡ᄉᆞ와니 내 엇디ᄒᆞ리잇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 가던 새 : 갈던 사래(밭고랑)
* 잉무든 장글란 : 이끼 묻은 쟁기

(나)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제2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一生)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으리라.
〈제4수〉

[A]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闕)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제5수〉

- 이현보, 「어부단가」 -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청산'에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나)는 '무심'한 대상에 대해 서운해 하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② (가)는 영탄적 어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있다.
③ (가)의 '가던 새'와 (나)의 '북궐'은 화자가 본래 있던 공간에서 떠나온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8. [A]를 해석하는 근거를 〈보기〉에서 찾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黃雀何方來去飛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一年農事不曾知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맸는데	鰥翁獨自耕耘了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耗盡田中禾黍爲

- 이제현, 「사리화」 -

①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참새'와 같이 '늙은 홀아비'를 착취하는 대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겠군.
②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속세를 예찬하는 이유는 '늙은 홀아비'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③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속세를 예찬하는 이유는 '참새'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④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늙은 홀아비'에 대한 화자의 믿음 때문이겠군.
⑤ 화자가 '제세현'을 떠올리며 세상을 걱정하는 이유는 일 년 농사를 아랑곳하지 않는 '늙은 홀아비' 때문이겠군.

39. (나)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서로 대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원컨대 이욕의 문을 막아	願言防利門
부모께 받은 몸 상하게 말라	不使損遺體
어찌하여 진주를 캐는 사람들	爭奈探珠者
목숨 가벼이 여겨 바다 밑에 드는가	輕生入海底
몸이 영화로우면 티끌에 물들기 쉽고	身榮塵易染
마음의 때는 물로 씻기 어렵네	心垢非難洗
담박한 맛을 누구와 의논하리	澹泊與誰論
세상 사람들 단 술을 즐기거니	世路嗜甘醴

- 최치원, 「우흥」 -

① (나) : 당신 역시 세속과의 거리를 느끼고 있군요. 세상은 마치 붉은 먼지와도 같지요.
② 〈보기〉 : 맞습니다. 욕심을 갖게 되는 순간 티끌과 때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완벽하게 속세를 잊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③ (나) :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아직 나라에 대한 걱정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아요.
④ 〈보기〉 : 비록 당신이 아니더라도 담박한 맛을 아는 세상의 인재들은 많습니다.
⑤ (나) : 하긴 그래요. 설마 나라를 구할 현명한 인재가 없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더라도 결국 전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하겠지요.

[40~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조당전은 고서적을 수집,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세조 3년 신숙주의 하인이 쓴 「영월행 일기」라는 책을 김시향에게서 구입한다. 그런데 「영월행 일기」를 판 김시향이 책을 돌려 달라고 찾아오자 조당전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재현을 제안한다. 그래서 조당전은 단종을 살피러 가는 신숙주의 하인 역, 김시향은 한명회의 여종 역을 맡게 된다.

제3장

(서재 가운데를 차지했던 원탁과 **의자**들은 구석으로 옮겨져 있다. 조당전은 넓어진 공간에서 당나귀 모형을 조립하는 중이다. 당나귀 몸뚱이에, 머리와 꼬리, 네 다리를 끼워 넣는다. 당나귀 다리에는 끌고 다니기에 편리한 바퀴를 부착한다.)

조당전 이 당나귀를 타세요.
김시향 제가……타요?
조당전 네.
김시향 왜 당나귀를 타야 하죠?
조당전 부인께서 다녀가신 후 나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는……결심했지요. 이 책을 부인의 남편께 되돌려 드리기로요.
김시향 고맙습니다, 선생님.
조당전 그러나 이 책의 형태만을 되돌려 드리렵니다.
김시향 형태만이라뇨?
조당전 내용은 우리가 갖는 것이죠.
김시향 무슨 말씀이신지……?
(조당전, 문갑 위에 있는 녹음기의 작동 버튼을 누른다. "꼬끼오-"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
조당전 어서 **당나귀**에 올라타요. 그럼 부인과 나는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김시향, 머뭇거릴 뿐 타지 않는다. 조당전은 김시향을 강제로 부축해서 당나귀에 올려 태운다.)
조당전 새벽닭이 울었잖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김시향 선생님도 타세요!
조당전 둘이 타면 무거워서 당나귀는 달리지 못해!
(조당전, 바퀴 달린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서 달리기 시작한다.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진다.)
조당전 8백 리 길이 모두 볼거리야.
김시향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당전 마음의 눈으로 봐.
김시향 (침묵한다.)
조당전 옛날 어릴 적 기억나? 따뜻한 봄이 되면 아이들은 참 좋아했었지. 풀과 나무마다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었어. 추운 겨울 동안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보게 되는 그 환한 광경, 마치 봉사가 눈을 뜬 순간처럼 신기하고 놀라웠지. 아, 저기 나비 좀 봐!

김시향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노랑나비예요? 흰나비예요?
조당전 왜 눈은 가리고 묻지?
김시향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었죠. 그해 처음 노랑나비를 보면 운이 좋고, **흰나비**를 보면 운이 나쁘대요.
조당전 그렇다면 가만히 눈을 떠봐.
김시향 (가렸던 손을 떼고 허공을 바라본다.) 어머나, 노랑나비네! 한 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도 노랑나비! 저기도 노랑나비! 온통 노랑나비 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조당전 임자, 처음엔 내키지 않더니 이젠 흥이 났군.
김시향 선생님은요, 선생님도 흥이 나셨으면서!
조당전 날 선생이라고 부르면 안 돼.
김시향 그럼 어떻게 부르죠?
조당전 임자라 불러.
김시향 임자……?
조당전 당신이라 부르든가.
김시향 (웃으며) 호호호, 당신…….
조당전 이 놈 당나귀도 신이 난 모양이야. 연신 코를 벌름거리면서 꼬리를 흔들어 대는군.
(조당전, 끌고 가던 당나귀를 멈춰 세운다.)
조당전 두 갈래 길인데…….
김시향 영월은 어느 쪽이죠?
조당전 동쪽이야, 강원도는.

(중 략)

(조당전과 김시향 나란히 바짝 붙어서 걸어간다. 조당전이 다른 방으로 통하는 미닫이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조당전 여기, 숲속에 조그만 기와집이 있군.
김시향 기와집요……?
조당전 아무도 안 계시느냐고 여쭈어라!
김시향 이상해요…… 인기척이 없어요…….
조당전 봇짐 장수 왔노라고 여쭈어라!
김시향 아무 응답이 없군요.
조당전 우리 함께 저 대문을 열어 보자구.
(조당전과 김시향,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미닫이문을 양쪽으로 밀어 젖힌다. 그러자 그 뒤의 공간이 보인다. 하얀 석고 덩어리처럼 **무표정한 얼굴의 소년** 형상이 의자 위에 앉아 있다.)
김시향 누군가 있어요…….
조당전 그래……쫓겨난……어린 임금이야…….
김시향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요…….
조당전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어…… 아무 표정도…….
(조당전과 김시향은 뒷걸음으로 물러선다. 무대조명, 서서히 암전한다.)

- 이강백, 「영월행 일기」 -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책의 내용을 재현하는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② 말줄임표를 통해 무표정한 얼굴의 소년과 김시향의 갈등이 해소됨을 알 수 있다.
③ 책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조당전의 의도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④ 상황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
⑤ 꼬리를 흔드는 나귀는 임금이 쫓겨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41. <보기>의 '미궁의 문'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윗글에서 고르면?

<보 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테세우스는 미궁으로 들어가 비밀의 방에 이르고자 한다. 비밀의 방에는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있다. 미궁을 통과하는 길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지만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미궁의 문을 통해야만 한다. 여기서 미궁의 문은, 대상의 본질을 적절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비밀의 방에 이를 수 있게 한다.

① 의자 ② 당나귀
③ 새싹 ④ 흰나비
⑤ 무표정한 얼굴의 소년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최서희는 고향 평사리로 돌아가기 위해 재력으로 매점매석과 친일을 서슴지 않는다. 서희의 하인인 길상은 그녀를 정성껏 보필하지만 그녀에 대한 연민과 애정, 주종 관계에 대한 갈등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녀를 향한 마음을 접기로 한다. 서희는 그런 길상과 신분을 넘어선 결혼을 결심하고 길상과 함께 회령을 방문하여, 길상이 마음을 둔 옥이네를 혼자 찾아간다. 옥이네 집에서 길상의 **헌 목도리**를 본 **서희**는 여관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새 목도리를 산다. 여관방에서 술에 취한 길상은 서희가 방에 들어오자 심한 말을 한다.

서희는 망토를 벗어던지고 방바닥서 굴러 떨어진 꾸러미를 주워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러더니 다음 순간 그것을 길상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진다.
"죽여버릴 테다!"
서희는 방바닥에 주질러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어릴 때처럼, 기가 넘어서 숨이 껄떡 넘어갈 것 같다. 언제나 서희는 그랬었다. 슬퍼서 우는 일은 없었다. 분해서 우는 것이다. 다만 어릴 때와 다르다면 치마꼬리를 꽉 물고 울음소리가 새나지 않게 우는 것뿐이다.
"난 난 길상이하고 도망갈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다 버리고 달아나도 좋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철없이 주절대며 운다.
"그 여자 방에 그, 그 여자 방에서 목도리를 봤단 말이야, 으흐흐흐흣……."
길상의 눈동자가 한가운데 박힌다.
"그 꾸러미가 뭔지 알어? 아느냐 말이야! 으흐흐…… 목도리란 말이야 목도리."
하더니 와락 달겨들어 나둥그러진 꾸러미를 낚아챈다. 포장지를 와득와득 잡아 찢는다. 알맹이가 밖으로 나왔다. 그것을 집어든 서희는 또다시 길상의 면상을 향해 집어던진다. 진갈색 목도리가 얼굴을 스쳐서 무릎 위에 떨어진다.
"헌 목도린 내버려! 내버리란 말이야! 흐흐흐…… 으흐흐흣……."
엄마 데려와! 엄마 데려와! 하며 발광하고 울부짖고 까무라치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고, 그칠 줄 모르게 패악을 부리던 유년 시절, 그때 서희를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

하고 있는 길상이지만 길상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술이 깨고 정신이 번쩍 들지만 무릎 위에 떨어진 목도리를 집었다간 불에 덴 것처럼 놓고 또다시 집었다간 놓고 하면서 서희의 울음을 그치게 할 엄두를 못 낸다. 드디어 그는 목도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서 마치 훔쳐서 달아나는 도둑놈처럼 방을 뛰쳐나간다. 문밖에서 엿들으려고 서 있던 여관집 주인 여자와 하마터면 이마빡을 부딪칠 뻔했다. 제 방으로 돌아온 길상은 우리 속에 갇힌 짐승처럼

"미쳤을까? 애기씬 미쳤을까?"

중얼거리며 맴을 돈다.

[A] 다음날 아침 길상은 서희를 몰아댔다. 용정으로 가자는 것이다. 두 남녀는 여관을 나왔고 함께 길을 걸었고 마차에 올랐으나 성난 얼굴로 서로 외면하는 것이었다. 상대편 얼굴 보기가 민망하기도 했으나 그보다 역시 아직은 서로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멍울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분수없이 지껄인 길상이나 체모 잃고 울어버린 서희, 분수없었다고 느끼는 이상, 체모 잃었다고 느끼는 이상, 이들 사이에는 엄연한 거리가 있는 거고 거리를 의식하면 할수록 멍울은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더 깊은 고뇌를 안고 돌아가는 것이다.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 때론 절망이, 때론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은 끝없이 방황하면서.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왔다. 그것은 용정을 향해 달리던 **마차**가 어떻게 되어 그랬던지 뒤집힌 사건이다. 학성(鶴城)에서 안미대(安味臺)에 이르는 중간쯤, 계곡 사이의 좁고 가파로운 내리막길을 달리던 마차가 **돌연** 뒤집히면서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중략 줄거리] 길상은 기절한 서희를 안고 병원으로 온다. 골절상을 입은 서희가 **병실**에서 정신이 들자 길상은 안도한다. 밤사이 의자에 앉아 서희 옆을 지키던 길상은 잠시 꿈을 꾼다. 꿈에서 그가 찾아간 귀마동에서 서희의 모친인 별당아씨가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잠에서 깬다.

그새 서희는 잠이 깊이 든 것 같다. 반듯이 누운 몸의 부피는 침대 수평과 거의 엇비슷,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다만 다리 부분 쪽이 솟아올라서 새까만 창유리에 곡선을 그어 놓고 있다. 아무 소리도 기척도 없는 밤, 어떤 일과도 상관하지 않는 정적이 메스꺼움을 느끼게 할 만큼 냉랭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서희는 죽지 부러진 새가 되어 누워 있다. 죽지 부러진 하얀 새 한 마리. 하얀 새는 죽어 있는 게 아닐까? 꿈속에서 들었던 얘기처럼, 그 별당아씨의 소식처럼 하얀 저 새는 죽어 있는 게 아닐까? 돌연 엄습해 온 공포가 길상의 덜미를 친다. 손끝에 닿으면 싸늘한 시체일 것 같다. 가까이 다가서서 서희 쪽으로 몸을 기울인 길상은 숨소리를 듣는다. 미동이 없는데 그러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다물린 엷은 입술에서 체취가 풍겨 나온다. 차가운 얼굴이다. 눈시울이 숨결에 나부끼는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 같다. 입술이 서희 얼굴 가까이…… 볼에 닿는다. 마약같이 괴로운 환희가 심장을 친다. 급기야는 격류가 된다! 물보라가 된다! 격류를 휘어잡으며 길상은 물러선다. 상쾌한 땀이 전신을 적시고 물러서는 순간 모든 속박에서 풀려난 것을 길상은 느낀다. 끈질기고 집요했던 속박, 격류는 파도가 된다. 파도가 밀려온다. 포효하면서 달려오는 것이다. 산더미 같은 **거대한 파도**가 그에게 무너져 온다. 사나이의 무한한 자신(自信), 거칠고 힘찬 야성(野性)이 드디어 춤을 추는 것이다.

길상이 의자로 돌아와 앉았을 때 복도에서 슬리퍼를 끌며 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끊어진 다음 찻잔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온다. 새벽이 다가오는 것이다.

매식(買食)을 하면서 이틀 밤을 보낸 길상은 다시 밤을 맞이하기 위해 저녁을 먹으려고 입원실을 나서는데

"좀 어떠시오?"

조수가 물었다.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길상을 따라 나란히 걸으면서 조수는 담배를 꺼내어 권한다.

"고맙소."

불을 붙여 문다.

"입원하신 분, 누이동생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이신가요?"

그간 무뚝뚝하게 대하던 조수는 아무래도 궁금증을 풀지 않곤 배길 수 없었던지 체면 불고하고 묻는다.

"내 처 될 사람이오."

- 박경리, 「토지」 -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인물이 지닌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작중 인물을 통해 주인공의 앞날을 예고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현재형 어미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병렬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⑤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려는 길상의 의도와 계획이 서술자의 논평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

43. [A]를 〈보기〉와 같이 각색했다고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S#37. 길가
길상은 서희와 함께 마차에 오른다.
길상 (마부에게) 용정으로 서둘러 갑시다.
S#38. 달리는 마차 안
길상 (창밖을 보며) (E*) 어제 애기씨에게 지껄인 말은…… 내 분수를 지키지 못했어.
서희 (눈을 감고) (E) 속내를 다 보이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군. 하지만 괘씸한 것은 분명해 …….
S#39. 산 비탈길
두 사람이 탄 마차가 달리는 비탈길 위로 두 명의 사내가 나타난다. 마차를 향해 총을 겨누는 사내들. '탕, 탕, 탕 ……' 여러 차례의 총소리. 마차는 길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길로 뛰어 내려가 부서진 마차를 바라보는 사내들.
사내 1 (낮은 목소리로) 최서희, 이제야 원수를 갚는군.
사내 2 (서두르며) 어서 갑시다. 총소리가 너무 많이 났소.
* E: 효과음

① 용정으로 가는 [A]의 공간적 설정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마차 안의 모습과 마차 밖의 모습을 모두 보여 주었으면 좋겠어.
② 〈보기〉에는 [A]에서 등장하지 않는 다른 부수적 인물을 추가하여 극적인 효과를 더해야지.
③ [A]와는 달리 〈보기〉에서는 길상의 자책을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내면 독백을 관객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어야 하겠어.
④ 〈보기〉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서희를 바라보는 사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인물 간의 갈등을 야기한 자가 서희였음을 새롭게 조명해야겠군.
⑤ 마차에 오른 후에 용정까지 가는 길목에서 '돌연' 뒤집히는 마차의 사고를 〈보기〉를 통해 좀 더 개연성 있게 설명해야겠군.

44. 윗글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여관'은 서희가 지녀왔던 내적 갈등의 상황이 외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공간이다.
② '헌 목도리'는 서희의 질투를 환기하는 소재로 서희가 '새 목도리'를 사게 된 계기가 되는 소재이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다.
③ '마차'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은 길상의 태도를 변화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④ '하얀 새'는 길상의 시각에서 바라본 서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대상에 대해 본래 지녀왔던 애정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⑤ '거대한 파도'는 길상이 앞으로 사랑을 쟁취하는데 겪어야 할 시련을 상징하는 소재이자 신분의 제약을 내포하는 소재이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경리의 「토지」는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해짐에 따라 물질적 풍요를 최우선으로 하는 획일적인 논리에 소설로써 저항한다. 박경리는 모든 것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중심화하려는 시대에 중심이 부재하는 소설을 장착하였다. 일례로 「토지」에 나오는 수많은 말들이 인물 간의 일상 대화, 논설적 어조, 한 인물의 내적 독백 등 다양한 형식과 논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말, 경상도, 전라도,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박경리는 속도를 중시하는 근대화의 논리에 반박하여 다양한 인물의 삶을 서술함으로써, 혹은 회상을 삽입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서사를 지연시켰으며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 상상을 가능케 하고,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와서 과거와 현재를 재해석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을 치유케 하였다.

① 인물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개입, 길상의 시각을 통한 묘사 등 다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와 인물 사이의 관계를 그려내었군.
② 길상이 과거 서희의 모습을 회상하는 부분은 독자들로 하여금 앞에서 읽은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오겠군.
③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드러냄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문맥에서 재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겠군.
④ 조수와 길상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사건이 서희가 아닌 길상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군.
⑤ 작중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을 회상하는 부분에서 서사 속도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속도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당시 인간의 정신 영역을 치유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일 수도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